

# 성탄과 믿음

The Holy Birth and Faith

요한복음 1:43-51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0년 12월 19일 성탄주일 설교

<sup>43</sup>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sup>44</sup>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벧새다 사람이라. <sup>45</sup>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sup>46</sup>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sup>47</sup>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sup>48</sup>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sup>49</sup>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sup>50</sup>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sup>51</sup>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 웃기는 성탄절

성탄절만 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가 정말로 12월 25일에 태어났느냐? 답은 뭘니까? “잘 모른다”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나신 날 밤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켰다 했는데 이걸 안 추울 때만 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봄 아니면 여름에 나신 걸로 봅니다. 그럼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됐습니까? 오래 전 교회가 그냥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하필 이날일까요? 몇 가지 설명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동지를 골랐다고 하는 영국 과학자 뉴턴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는 동지가 12월 25일이고 이 날은 큰 축제일이었습니다. 깊어만 가던 밤이 이 날부터 짧아지니 빛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좋았을 것입니다. 12월 25일은 주님이 나신 날도 아니고 지금은 동지도 아닌데 우리는 성탄절을 왜 지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생일을 몰라도 하루쯤 날을 정해 축하하는 것도 나쁠 건 없지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여름에 태어났다면 왜 겨울에 축하하느냐 하고 작년에도 놀리더니 올해도 또 놀립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해는 언제일까요? 서양 연도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비시 (B.C.) 하나는 에이디 (A.D.)입니다. 비시가 뭘니까? 비시는 영어인데 비포 크라이스트 (Befor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에이디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anno Domini) 라는 말인데 “주님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먼저 계산해 그 해를 에이디 일 년으로 정하고 그런 다음 그 전은 비시, 이후는 에이디로 해 연도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다시 보니까 처음 예수님이 나신 해를 계산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 보니 예수님은 비시 사 년 내지 육 년에 나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나셨다고요? 예, 예수님은 예수님 나시기 사 년 전 또는 육 년 전에 나셨습니다. 사람 하는 일이 다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또 조롱합니다. 쓸데없는 조롱 안 당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도 좀 똑똑해야 됩니다.

날짜도 웃기고 연도도 웃긴데 놀릴 거리가 또 있습니다. 예수 탄생 기록이 주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는데 이 두 기록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수께서 나신 날 밤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박사들이 왔다 하고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 장면을 그린 그림이나 조각에는 박사하고 목자가 다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은 요셉하고 마리아가 처음부터 베들레헴에 살다가 거기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원래 북쪽 갈릴리에 살았는데 호구조사 때문에 남쪽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아이를 낳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물론 깊이 살펴보면 다 맞는 말이지만 언뜻 보면 달라 보이니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겐 좋은 비방거리가 됩니다. 날짜도 모르고, 연도도 엉터리고, 기록도 잘 안 맞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웃기는 성탄절이 되는 거지요.

## 하나님의 속뜻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탄생 기록을 보면 다른 점보다는 아무래도 같은 점이 더 많지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서 나셨다는 것도 같고 그 처녀가 요셉이라는 청년하고 약혼한 사이였다는 것도 똑같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나실 때까지 동침을 안 했다는 것도 똑같고 예수라는 이름을 천사가 정해준 것도 똑같고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장소가 베들레

햄이라는 것도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마태도 누가도 다 이렇게 태어나신 아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곧 하나님이 온 세상을 위해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똑똑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나신 날짜나 연도도 영망이고 탄생 기록도 뒤죽박죽이라고 놀리는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은 “아 그렇구나” 하고 믿습니까? 안 믿지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쓴 두 기록이 이렇게 놀랍게 일치하는데도 거긴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맞아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기 때문에 안 맞다 싶으면 공격하고 잘 맞아 들어가는 건 그냥 모른 체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성탄절을 겨울에 지키게 된 거라든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가 뒤죽박죽된 된 것이 상당히 뜻이 깊다고 봅니다. 무식해서 그렇게 된 건데 거기 무슨 뜻이 있나 싶지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방법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사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도 십자가를 거부했지만 그 똑똑하다 하던 그리스사람들도 십자가를 말이 안 된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걸려 넘어지는 돌부리가 되었습니다 (고전 1:18-24; 뱀전 2:8).

어쩌다 보니 돌부리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 머리로 납득이 안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롬 10:10). 예수께서 나신 날짜나 연도도 또 그걸 기록하고 있는 성경도 그런 식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요. 하지만 일단 믿고 나면 어떻습니까? 믿으면 다 보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도 담겨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마을 출신 예수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왜 나사렛 예수가 되셨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그걸 잘 몰라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이름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못 믿은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왜요? 구약성경에서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요한복음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능력 있게 가르치신 다음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하고 외치셨습니다 (요 7:37-38).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이 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틀림없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당장 반박합니다. “메시아라면 갈릴리 사람일 수가 없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난할 때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 하고 비난했습니다 (요 7:47-49).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직접 보고 듣고 안 해도 성경이 말씀하면 그건 틀림없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이라면 일단 믿고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믿은 다음 이 나다나엘을 만나 예수를 전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무슨 이야기인지 나다나엘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지요.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는 아닙니다. 메시아라면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즉각 되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 와서 보아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나사렛 동네를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데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실 수가 없다” 쉽게 말해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니 말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빌립이 뭐라 대답했습니까? “와 보라.” 이거 짧지만 참 명문입니다. 성경 좀 안다고 따지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직접 와서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따지는 이거 시작은 빌립이 했습니다. 그냥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 될 것을 괜히 성경을 들먹여 가면서 모세가 어떻게 선지자가 어떻게 하니까 나다나엘도 “성경에는 안 그렇던데?” 한 거지요. 빌립이 아마 그 순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따지고 “와 보라” 한 거지요. 참 잘 했습니다. 말 많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빌립식 전도가 최곱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다니엘이 따라갑니다. 방금 제 입으로 “말도 안 된다” 해 놓고 “와서 직접 보라” 하니깐 갑니다. 이거 뭐니까? 은혜지요?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내 머리는 지금 아니라 하는데도 마음이 가니 놀라운 일이지요.

빌립을 따라오는 나다니엘을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속임이 없다.” 인간성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속임수 잘 쓰던 야곱의 후손인데 나다니엘에게 속임수가 없다면 이스라엘이 달라졌다는 말씀이겠지요?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건 메시아가 오셔야 가능한 일이니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말씀도 됩니다. 좀 선문답 같지요. 나다니엘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여쭙었더니 “아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보았다” 하셨습니다. 이 대화는 더 어렵습니다. 나다니엘이 정말로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고 주님이 그걸 보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자마자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대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 은혜와 믿음

도대체 나다니엘이 뭘 보고 주님을 즉각 믿게 되었는지 잘은 모릅니다. 어쩌면 남몰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단번에 알아보시니 메시아이신 줄 깨달았을 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 분명 아닌데 와서 직접 보라는 그 권유를 받아들였더니 그 분이 맞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던 건 “베들레헴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는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를 가서 만나 보니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났습니까? 예, 났습니다. 그럼 성경이 틀렸습니까? 아니지요. 성경도 맞습니다. 이름은 나사렛 예수지만 그 분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 맞습니다. 마태, 누가 두 사람이 복음서 첫 부분에서 부지런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평소 나사렛 예수라 불리신 갈릴리 출신의 그 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메시아라는 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름만 듣고 아니라 하고 말았다면 영영 못 믿었겠지요. 다른 지식도 아닌 성경 지식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을 따라 가서 주님을 만났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 보니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분이 맞습니다. 믿기 전에는 내 지식하고 영원의 진리가 안 맞아 들어갑니다. 성경 지식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믿으니 모든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깨나 압네 하면서 나사렛 예수는 절대 아니라고 우기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많은 종교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사렛 예수는 아니라며 못 믿겠다고 버텼습니다. 성경하고 달라서 못 믿겠다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성경을 잘 믿어 나사렛 예수를 거부한 게 아니라 예수가 싫어서 그 구실을 성경에서 찾은 겁니다. 은혜가 본디 그런 겁니다. 멀리서 예수 소문만 듣고도 믿고 찾아온 박사들이 있는가 하면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을 직접 듣고서도 못 믿은 헤롯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됐지요. 헤롯뿐이겠습니까? 수천 년을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데도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많은 성경학자 가운데 “할렐루야!”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 지식 아닌 믿음

내 많은 지식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12월 25일이 예수가 태어난 날이 아닌 줄 아니 상당하지요. 예수가 예이디 일년이 아닌 비시 사년 이전에 태어났다는 것까지 알았다면 더 대단합니다. 성경을 읽어 비교까지 했다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식이 문제입니다. 그 지식 때문에 사람들이 망합니다. 아니, 망해가면서 그 지식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그렇습니다.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적용을 잘 못 해 그 지식 때문에 망합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저주를 받는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걸 핑계로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메시아이신 것 같은데, 하시는 이적을 보니 틀림없는데, 왜 하필 그 분 이름이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입니까? 그럼 거꾸로 베들레헴 예수라 했으면 다 믿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 가운데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지식이 있든 없든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의 세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밤에 예수를 찾은 니고데모처럼, 빌립을 따라간 나다니엘처럼, 주님을 찾아가 봐야 됩니다. 아기

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얼른 만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먼 옛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앞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분은 별처럼 나타나실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 24:17). 그 가르침을 받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은 이상한 모양을 한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분이 오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걸어 그 분을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도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고 달려가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눅 2:16).

## 믿음의 비밀

믿음은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구원도 십자가를 통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도 이해 못 하고 그리스인도 이해 못 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만 깨닫고 감사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주 예수께서 여름에 나서도 좋고 겨울에 나서도 괜찮습니다. 계산을 잘 못 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연도가 좀 뒤죽박죽이 돼도 적어도 그 분을 인류 역사의 중심으로 삼고자 한 열심 하나가 그저 아름답게 보일 따름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 없을 때는 왜 이리 앞뒤가 안 맞나 싶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이 더 넓게 보일 따름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 예수를 믿은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베들레헴 메시아이신 줄 성경에서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다고 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건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보고도 못 믿은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안 보고도 믿고 사랑합니다 (벧전 1:8). 성경 지식 때문에 못 믿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먼저 믿고 성경도 제대로 압니다. 학교도 다닐 만큼 다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세상 경험도 할 만큼 한 사람들이 맞지도 않는 날짜에 그 분이 오셨다고 좋아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이것 하나 말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 하나님의 구원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멸망할 우리 인간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 예수를 믿은 나다니엘에게 오래 전 야곱이 꾸었던 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기에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았던 죄의 벽을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올려 드립니다.

성탄절이라고 트리 장식도 하고 캐럴도 열심히 부르고 연극도 합니다. 메시아 공연도 보러 가고 호두까기 인형 발레를 보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화점도 부지런히 드나들지요.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우아하게 시간을 보내면서도 정작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예수님 몸 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못 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발레 못 보고 백화점 못 다녀와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저 이 날이 있어 감사하고 주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이 땅으로 오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 몸을 사다리 삼고 하늘로 올라갈 차례입니다. 믿음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성탄은 그렇게 주님 몸을 타고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권수경 목사)